포장이사의 기적

(막10:32~45)

40.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4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포장이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처음 포장이사라는 것을 외국생활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접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사를 할 때 살림살이를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부엌살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방에 침구류가 있고, 옷장에 옷이 있고, 신발장에 신발이 있고, 근데 포장 이사는 이 집안에 흩어져서 배치돼야 될 이 살림살이의 영역들을 그대로 기억을 해 가지고, 부엌의 그릇들은 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이전 집의 예를 들어 뭐 찬장이 있다 그러면 그 찬장에 해당되는 새집의 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찬장에 그대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아~ 참 신기해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아침밥 먹고 얼른 아침밥 간단하게 먹고 설거지만 다 해가지고, 아침밥 먹을 때 필요했던 그 그릇들을 다 제자리에 넣고 나서 몸만 빠져 나

오면, 어질러지면 어질러진 그대로 들어와서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 옮겨다 줍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이사를 할 때에 뭐 이번이라 그래도 2년이 지났네요.
인상이 남는 게 있어요.
'부장님, 부장님' 그러더라고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 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특별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프라이드를.
근데 그 프라이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책을 옮기는데서 나타나더라고요.
완벽한 포장이사에 대한 프라이드로 가득 찬 이 부장님의 프라이드가 표현된 곳이, 그래도 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옮겨 놓는데, 책장에서 오른쪽 왼쪽을 정확하게 기억해 가지고 몇 째 칸까지 기억해서 책을 그대로 갖다 꽂아 놓더라고요.
신학에 관한 책들을 모아놓고, 외국 서적들을 조금 있는 걸 모아놓고, 주석책을 모아놓고 따로 분류를 해 놨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분류해 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이사를 해도 제 짐을 그렇게 못 꽂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책을 이대로 다 갖다 꽂느냐 그랬더니,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본인의 그 완벽한 포장이사를).
인정합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적이에요.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됐지요?

여러분, 신앙도 바로 이 기적 같은 포장이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우리가 그런 구절을 읽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버린다고 해도, 아내가 어디로 가버리는 거 아니고, 부모가 어디로 가버리는 거 아니고, 자식들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내가 자식을 버리고 정말 어디 딴 지방 가서 사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살림살이가 옮겨지듯이 그대로 그 살림살이가 있는 건데, 그 관계가 있는 건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 받아들이기 이전의 관계들이 완전히 포장이사를 해 버린다는 겁니다.
신세계로 이사를 합니다.

구세계에서 신세계로 포장이사를 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포장이사가 경험되지 않으면 아직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 반복돼서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아주 야심에 찬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주님께서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영광 중에'라는 말은 오늘 본문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유대 나라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중에 으뜸이 되게끔 이끌어 올리시고, 이 대업을 완성시키실 그 때에, 저희 형제를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삼아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건 나중에 공평하게 제비를 뽑던지 해야지,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미리 가서 예수님에게 나는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는 부탁을 하느냐?
얼마 전에 그 노중에서 제자들이 누가 으뜸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이방세계에서 으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가져가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세계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으뜸이 된 자가 권력경쟁에서 으뜸이 된 자가 권력을 쥐게 되면, 그 권력을 쥐어짜는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밑에 사람들을 부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등이 되기를 원한다, 권력경쟁에서 일등, 돈 경쟁에서 일등, 건강경쟁에서 일등, 지식경쟁에서 일등 이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세상이 이방세계인데, 그 이방세계에서는 왜 으뜸이 되려 하냐 하면, 으뜸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위너가 루저에 대해서 막강한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방세계의 풍습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오해가 있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방세계적 특성을 그대로 갖고 살아갑니다.
이방세계적 특성이 뭡니까?
오복, 간단하게 말해서 오복을 향한 경쟁구도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방세계의 특성입니다, 오복을 향한 경쟁구도.
누가 더 오래 사냐, 누가 더 많이 갖냐, 누가 더 높아지냐.
이 경쟁구도에 사는 이 이방세계인데.

이방세계의 특성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자제하고 섬김의 덕을 갖추어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 된 거예요.
이방세계의 구도에서 살면서 섬김의 덕을 갖추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 말고 섬기려고 해라.
그런 덕을 갖추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욕망을 자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방세계를 굳이 얘기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세계로 들어가라는 얘깁니다.
신세계로 들어가면 섬김이 본능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런 세계로 들어가라는 얘기에요.
일등이 될 필요가 없는 세계, 일등을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신세계로 들어가라는 얘깁니다.
구세계에 머물고 구세계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살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구세계의 습성대로 솟구쳐 올라올 때에, 그걸 좀 나를 생각해서 자제하고 좀 억누르고 섬김의 자세를 바꾸어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새 세계로 들어가라는 얘기에요, 이방세계가 아닌, 이방인의 특성으로 지배되고 있는 구세계가 아닌 신세계로 옮기라는 얘깁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면, 으뜸 콤플렉스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무한히 섬기고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죠?
32절부터 34절까지 또 다시 세 번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자, 이 십자가고난을 예고하신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앞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것저것을 다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도 백배를 받고 영생을 얻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먼저 된 자 나중, 나중 된 자 먼저라는 말을 딱 캐치를 하고 뭐라고 이해를 했냐 하면, 아! 일등 이등이 가려져야 된다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탁을 앞서서 야고보와 요한이 드린 겁니다.
주님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를 한 것이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얘기하고 나를 위한 복음을 위해 모든 걸 다 버리자는 현세에서 백배를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버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리고 십자가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집을 버리느냐?
그거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걸 어떻게 버리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버린다, 이 얘기에요.
그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십자가가 경계에요 경계.
어떤 경계냐 하면, 구세계와 천국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라는 얘기는, 이제 십자가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에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나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 들여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이 집과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를 경계로 세상과 붙어있는, 주님이 가까이 끌어오신 천국으로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으로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몸을 통하여 집을 관리하고 형제와 부모와 자식을 관계하고 전토를 관리했던 것처럼, 천국으로 들어온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게 되고 천국을 느끼면서, 천국이 현실이 되게 됩니다.
마음에 현실이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몸을 통해서 마음이 이 세상을 현실로 느꼈듯이 천국을 성령을 통해서 현실로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간 상태,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빠져 나온 세상을 바라봅니다.
신세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집이 있고 그대로 내 전토 경제적인 상황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백배로 받는다라는 말을 해요, 백배로 받는다.
그렇다고 형제를 백배로 받으면 형이 백 명이 생기고, 누이가 백 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집이 백 채가 생긴다는 뜻이 아니지요.
백 배가 생긴다는 건 이상하게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내 형제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고, 내 경제적인 형편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 향하여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로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천국을 만나고 천국이 제1현실이 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돌아보는데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식을 보는데 자식이 백 배로 은혜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부모를 보고 내 경제 상황을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대로 옮겨진 거예요.
그냥 이전에 살던 집의 살림살이를 새집으로 옮겨놨을 뿐이에요, 그 살림살이가 그대로예요.
그런데 완전히 백 배의 은혜로 느껴지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형제가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리고, 그 부모가 다른 세계로, 신세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바라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뭘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동안 좋다고 했던 오복 중에서, 오복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라는 일등 경쟁에 뛰어들 마음도 없고 뛰어들 필요도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어느새.
단지 나는 마음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 몸을 통해서 맺게 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린 겁니다, 사람이건 물건이건 일이든.

그리고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천국에서 아버지 만나고 천국이 제1현실이 된 상태에서 내 몸이 남아있는 세상을 둘러보니까, 살림살이 그대로 다 있어요.
모든 관계 그대로 다 있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형제를 보는 게 이상해요.
내 마음에서 무슨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수도관이 터졌을 때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형제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가는 겁니다.
그에게서 받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내게 주었으면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를 향하여 끝없이 끝없이 사랑이 나가는 이상한 세상이 벌어진 겁니다.
신세계를 이루자고 마르크스는 모든 부자를 죽이자 그랬어요.
노동자 계층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 그러나 안 바뀌어요.

자,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부자로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부자의 마음이 부자가 아닌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이고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얘깁니다.
내 재산, 집 전토를 다 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아닌 상태죠, 내 명의에 통장에 돈이 있지만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 그래요 매우 놀랐다, 왜 매우 놀란 줄 아십니까?

이게 구세대, 이방세대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왜 놀랐냐 하면, 유대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유대사회, 선민의 사회인데도 돈 많은 거였어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이방 사람들이 오복을 많이 가지면서 으뜸이 되기를 원했던 것과 똑같이 유대사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인데 그 섬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했다고 하는 증거가 돈 많이 버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돈 많이 번 부자가 왜 천국에 늦게 들어가느냐?
매우 놀란 거예요, 매우 놀란 겁니다.
돈 많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으로 믿었고,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집 버리고 전토 버리고 쫓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으로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으로 버린다는 의미를 이해한 게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영광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백배 받는다 얘기하고, 나중 된 자 먼저, 먼저 된 자 나중 얘기를 해 버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아! 으뜸경쟁에 박차를 가 하시게끔 만드시는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야곱과 요한이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똑같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구세계에서 갖고 있는 으뜸 콤플렉스를 그대로 옮겨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신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세계로, 이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일등 으뜸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으뜸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기고 싶어 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경제적인 상황조차도 이상하게 형편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멋진 으뜸인 상황으로 이끌어 들이고 싶어 했던 그 상황이

그대로가 백배로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로 느끼는 강도가 백배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자식을 봐도 경제 형편을 봐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내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한히 열려버리게 됩니다. 이상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섬기는 것이 본성이 돼버립니다.
본성적으로 이 땅 위에선 아무것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수련을 거치란 얘기가 아닙니다.
날마다 뭐 굉장한 훈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보고 주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어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내 마음도, 아버지 계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내 마음도 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 하나, 이 기도, 이 소망으로 기다리다 보면, 내 마음이 천국으로 끌려지게 되고 천국이 내 첫 번째 현실이 되면서 이 세상이 갑자기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살림살이는 그대로에요, 완전히 다른 집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세계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 포장이사의 기적 마르크스같이 한다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그리고 2000년 전의 제자들의 그 상태, 지금도 똑같아요.

박 근혜 씨 뭐 민주당 싸우는 게 다 으뜸경쟁이에요, 아직까지 똑같아요.
이게 바로 구세계입니다, 이게.
서울대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만 되는 것이고, 이왕이면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이게 구세계입니다.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주님 바라보며 32절부터 예고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내 마음이 같이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싶다, 이 세상에서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이거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천국이 현실로 느껴지기를 기다릴 때, 세계로 신세계로의

포장이사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섬김은 새 세계에 들어간 사람의 본성이에요.
새삼스럽게 말할 덕목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반드시 그리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이 신비로운 영적인 포장이사의 기적을 오늘도 곳곳에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서, 십자가와 연이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은 더 이상 이방인들의 세상인 구세계가 아니고, 신세계로 바뀌는 포장이사의 기적을 오늘도 곳곳에서 때때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